

전 남

남해 어종 확 바뀌었다

90년대 이후 멸치·고등어·오징어 난류성 3종 어획량 60% 이상

1990년대 이후 남해에서 잡히는 어종이 난류성 어종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는 최근 40년간(1970~2010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40년 연평균 132만톤의 수산물 어획량 중 어류는 94만톤으로 남해가 73만(78.4%)이었고, 1971년 이후 남해의 어류 어획량은 꾸준히 증가 경향을 보였다. 연대별 주요 어종의 변화를 보면

▲1970년대 멸치·고등어·갈치·쥐치 ▲1980년대 쥐치·멸치·정어리·고등어, 갈치 ▲1990년대 멸치·고등어·오징어·갈치 ▲2000년대 멸치·고등어·오징어·갈치 등으로 바뀌었다.

또 주요 어종의 변화와 함께 온대성 기후 어종인 멸치, 고등어, 오징어 등 3종류의 어획량이 1970년대 40% 전후에서 1990년대 이후 60% 이상 차지해 난류성 어종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양식 생산이 남해에 집중돼 있어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년간(1990~2010년) 우리

나라 전체 평균 생산량은 98만톤으로 ▲해조류 61만톤 ▲패류 31만톤 ▲어류 4만5000톤이다. 이 가운데 남해의 양식 생산량은 90만톤으로 전체 양식생산의 91.8%를 차지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남해가 생산력이 높은 이유는 작은 바다 면적에도 주요 어종의 산란장과 성육장으로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바다면적은 ▲동해 100만7600km ▲서해 40만4000km ▲남해 7만5400km이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빙그레 웃는’ 완도 웃음산업

2014년까지 테마촌 건립

5월 웃음 페스티벌 개최

‘빙그레 웃는 섬’ 완도군이 지난 2010년부터 웃음산업을 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완도군이 올해 ‘웃음 페스티벌’을 열게 된 배경은 지명에서 찾을 수 있다. 완도의 ‘완(莞)’은 ‘빙그레 웃는 완’에서 완도(莞島)는 ‘빙그레 웃는 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완도군은 ‘웃음산업’을 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웃음대학’을 개설, 웃음치료사 109명을 양성해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파견하고 있다. 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의 일환으로 매주 웃음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완도군은 민간자본 등 179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까지 ‘웃음



테마촌과 ‘웃음연구소’ 건립 등 웃음 인프라를 구축, 우리나라 최고의 건강·여가·휴양의 중심지로 만들 것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도군은 장보고축제

를 선사할 계획이다. ‘웃음 왕’ 선발은 1차 예비심사를 거쳐 60개 팀을 선발한 다음 다시 2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할 20개 팀을 최종 선발한 후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 시상한다.

특히 예선 등을 통해 선발된 우수 10여개 팀은 SBS 인기 예능프로 스타킹에 출연, ‘개그 킵’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김종식 군수는 “스트레스 지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웃음”이라며 “앞으로 ‘웃음산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매력적인 웃음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61-550-5470)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함평 ‘고순도 알루미늄’ 공장 내일 준공...6월 출하

함평에 첨단소재인 ‘고순도 알루미늄’ 생산공장이 8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6일 함평군에 따르면 학교면 죽정리 학교농공단지내 부지5388㎡에 LED용 ‘사파이어 잉곳’의 원료이면서 2차전지 핵심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 코팅제로 쓰이는 소재인 ‘고순도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에이치엠알

(대표이사 김태룡·이하 HMR) 공장이 들어섰다.

HMR이 생산하는 알루미늄은 99.999% 이상의 순도를 자랑하는 제품이다. 현재 2~3인치 규격이 주력인 ‘사파이어 잉곳’이 앞으로 6인치 규격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품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HMR은 현재 각 수요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출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앞으로 공장이 정상가동되면 연간 3000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총 400억원의 연매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광주호 독높이기’ 본격 추진

사업비 489억 확정...올 착공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는 “최근 총사업비 489억원을 확정받음으로써 올해 공사 착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총사업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세부설계 총사업비 최종 확정을 받았다. 한편 광주호는 지난 1976년 준공돼 35년이 경과된 저수지이다. 2007년 정밀안전 진단결과 여수로 방수로(물넘이 시설)가 배제능력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인 ‘D등급’ 진단을 받았다.

이에 전남지역본부는 각종 협의, 토론회 및 설명회를 열어 찬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보강과 함께 홍수 조절량 확보, 발생가능한 최대 홍수량에 의한 홍수위를 1.2m가량 낮추는 등 사업계획 일부를 조정했다.

한편 광주호는 지난 1976년 준공돼 35년이 경과된 저수지이다. 2007년 정밀안전 진단결과 여수로 방수로(물넘이 시설)가 배제능력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인 ‘D등급’ 진단을 받았다.

이와 함께 완도군은 장보고축제



토론회 및 설명회를 열어 찬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보강과 함께 홍수 조절량 확보, 발생가능한 최대 홍수량에 의한 홍수위를 1.2m가량 낮추는 등 사업계획 일부를 조정했다.

한편 광주호는 지난 1976년 준공돼 35년이 경과된 저수지이다. 2007년 정밀안전 진단결과 여수로 방수로(물넘이 시설)가 배제능력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인 ‘D등급’ 진단을 받았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春心 사로잡을 ‘구례 산수유 꽃축제’ 23일 열려요

지리산온천 관광지 일원

‘제13회 구례 산수유 꽃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산수유 군락지와 인접한 지역에 축제 상설행사를 조성해 산수유꽃과 풍성한 공연이 어우러지게 진행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충심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주요행사로 산동면 산수유나무 시목지에서 풍년기원제를 시작으로 산수유 음식 품평회, ‘황금 산수유꽃을 찾아라’, ‘산수유꽃 열린무대’, ‘행복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



사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행사기간 중에는 산수유 대형 족욕탕, 산수유 음식체험 등 산수유와 관련된 건강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산수유 카페테리아’, ‘산수유마을 미션캠핑 1박2일’ 등

산수유 군락지 곳곳에서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우두성 축제추진 위원장은 “예년과 같이 3월중순경엔 산수유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목포에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 완공

전국 최대·최고의 시설을 갖춘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가 목포에 세워졌다.

목포시는 22억5000만원을 들여 최근 옥암동 부주 근린공원내에 클라이밍 센터를 완공, 오는 5월 개장한다.

센터는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위원회(IFSC) 대회 규격 규정에 따라 (사)대한산악연맹의 공인을 받았다.

스피드벽(속도 벽) 2면, 리드벽(난이도 벽) 등 4면으로 구성됐다. 초·중학생, 초보자 교육과 체험장으로 활용할 난이도 벽(12m) 3면, 볼더링 벽(6m) 3면도 설치됐다. 실의 압박장은 난이도 벽(5m×15.5m) 4면, 속도벽(3m×15.5m) 2면을 국제규격으로 조성했다. /서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

道 여수박람회지원관실 보육원에 입장권 기부



전남도가 포상금으로 여수엑스포 입장권을 구입해 보육원에 전달했다.

전남도 여수박람회지원관실은 6일 오후 신안군 압해면 신안보육원을 방문해 150만원 상당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을 기부했다. 입장권 기부는 여수박람회지원관실이 ‘2011년 도정 우수시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받은 포

상금(150만원)을 의미있게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박람회 입장권 구매 촉진과 입장권 기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운 전남도 여수박람회지원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인과 독자들이 소외계층에게 박람회 입장권을 구입해 기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함평 해보파출소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실

함평경찰서 해보파출소(소장 정중오)는 최근 만연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예방대책을 시행, 주목을 받고 있다.

해보파출소는 지난 5일 해보중학교 강당에서 신학기를 맞아 전교생을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교실을 열었다. 이날 해보파출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한편 경찰관과 학생

간 삼촌 맺기(1:1 멘토 체결)를 통해 학교폭력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정중오 해보파출소장은 “경찰관과 학생간 멘토체결로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욱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 50% 확정!!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은 전력은 한전으로 역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씨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클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기준용량(사용전력량 kWh/월)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신청하신날 태양광센터입니다. 해마다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입주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금액 : 680~880만원 [설치비포함] (설치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H.P 011-659-7001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할인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